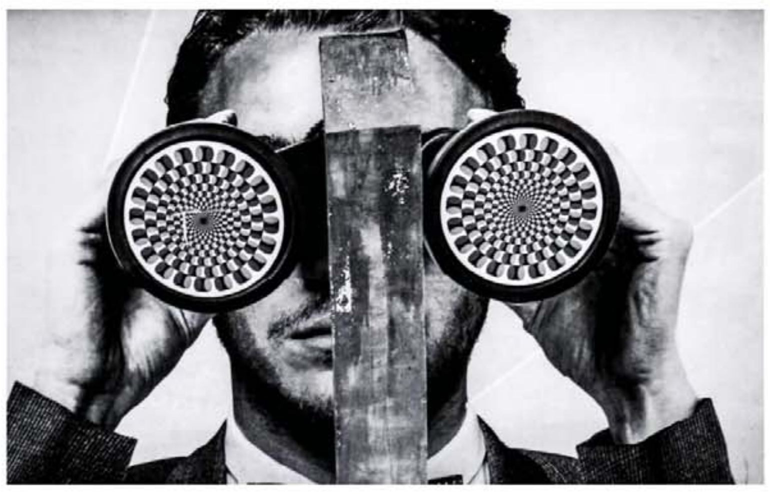
지구촌을 보다



왼쪽부터 양다(중국) 작 '동부 표준시', 이정록(한국) 작 '나비', 스쯔후이(중국) 작 '옛날 직업들'.

시대를 읽다

담양군문화재단, 국제사진 교류전

담빛예술창고 7일부터 한·중·미 작가 참여
남촌미술관·한국대나무박물관 갤러리 등서도

담양담빛예술창고를 운영하는 (재)담양군문화재단은 사진 전문지 '포토닷'과 함께 다양한 전시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중국 대리 국제사진축제에 참여했던 재단은 올해 '2018 국제 사진전-사진의 또 다른 관계성(Another Relationship of Photography)'을 담양의 문화공간에서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담빛예술창고를 비롯해 남촌미술관, 한국대나무박물관 갤러리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진 매체가 지닌 중요성을 전할 이번 전시 참여작가들은 다양한 시각을 기반으로 한 개성 있는 작품을 통해 지구촌 시대 문제를 고민하고 인간 내면을 탐구해온 이들이다.

오는 7일부터 9월2일까지 담빛예술창고에서 열리는 전시에는 한국과 중국, 미국 작가 8명이 참여한다.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사진과 교수로 40년간 재직한 미국의 필립 퍼키스는 1992년 멕시코에서 찍은 사진을 한쪽 눈의 실명과 두번의 심장 수술, 한 번의 신장 이식 수수를 받은 20년의 시간을 거쳐 80이 넘은 노작가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본 '멕시코' 시리즈를 전시한다.

중국 작가들의 시각도 다채롭다. 리양 작가의 '404 찾을 수 없습니다'는 중국의 가장 큰 핵 기술 연구 베이스를 지원하는 핵폭탄 프로젝트로 세워진 도시 '404'를 소재로 한 작품이며 스쯔후이는 전통적인 공예 등 사라져가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춘 '옛날 직업들'을 전시한다. 그밖에 양다는 인간의 본성을 다룬 '동부 표준시' 연작을 선보인다.

그밖에 석재현 작가는 낯선 해외에서 느낀 자신의 경험들을 풀어낸 '틈'을 전시하며 라규채 작가는 '소쇄원'을 소재로 작업한 작품을 전시한다. 이정록 작가는 실체를 잡을 수 없는 에너지 그 자체인 '찰나의 빛'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간 '나비'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금보성 작가(금보성아트센터 관장) 설치 작품 '테트라포트'도 담빛창고 야외에 특별 전시된다. 담빛예술창고가 담양 관방제림 옆에 위치한 점에 착안해 기획된 프로젝트로 영산강 상류인 담양천의 물길을 다스리기 위해 축조된 관방제림의 의미와 '지켜주다', '보호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금 작가의 '테트라포트'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밖에 담빛예술창고 문화공간에서는 김인혜 작가의 '담벼락 이야기-기억' (7일~8월10일)전이 열리며 남촌미술관에서는 '너와 나의 관계-소혹성의 사람들'을 주제로 정혜원 작가 개인전(7일~8월4일)이 관람객을 만난다. 또 한국대나무박물관 갤러리에서는 7일부터 8월10일까지 '사진 관계'를 주제로 권일, 김동필, 송무용 작가가 전시회를 갖는다.

전시 개막식은 10일 오후 5시 담빛예술창고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전시를 축하하는 의미로 대리국제사진축제 바오 총감독 일행이 담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의 061-383-824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신영배 시인

백민석 소설가

신영배·백민석 김현문학패 수상

(사)문학실험실은 올해 제4회 김현문학패 수상자로 시인 신영배(46)와 소설가 백민석(47)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현문학패는 목포 출신 평론가 김현(1942~1990)의 미래지향적 문학관을 기리기 위해 2015년 제정된 문학상이다. 한국문학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실험정신을 지닌 시인과 소설가를 한 명씩 선정해 시상하며 등단 5년 이상, 김현이 타계한 나이인 만 48세 이하 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위원회는 신영배를 "2001년 등단한 이래 한국 여성 시의 새로운 경지를 집요하게 개척해왔다"고 밝혔으며 백민석을 "1995년 등단해 새로운 시대의 모순에 맞서는 '분노 자본'의 분출을 통해 소설적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왔다"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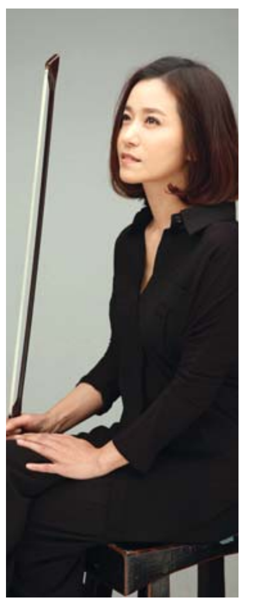
수상자에게는 문학패와 창작지원금(시 1000만원, 소설 1500만원)을 준다. 문학패 수여식은 오는 9월 28일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다. 문의 02-765-9682.

/박성천 기자 skypark@

여름 밤 아쟁과 재즈가 만났을 때

정미정 콘서트 … 재즈트리오 협연 5일 광주문예회관

곽윤찬



정미정

여름의 더위를 날려줄 정미정의 아쟁 콘서트 'THE MOON'이 5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아쟁 연주자 정미정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9호 한일섭제 박종선류 아쟁산조 이수자이다. 현재 한양대학교 음악학 박사, 성남시립국악단 상임단원으로 재직중이다.

정 씨는 지금까지 15회의 개인독주회와 4회의 2인 음악회를 비롯해 러시아 현지 IRKUTSK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그리고 차이코프스키음악원, 대만국립예술대학 교류 연주 등 해외 연주 활동을 통해 아쟁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정씨는 또 제1회 한국전통음악 전국경연대회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제9회 구미 전국국악대전 현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2년에는 1집 음반 '월련 달, 그리다'을 발매했으며 올해 1월에는 2집 'Moon' 음반을 발표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2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 중 'Moon', 'Flying Bird', 'Home'을 비롯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 팝송 'Fly me to the moon' 등 다양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재즈트리오와의 협연을 통해 크로스오버 장르도 선보인다. 재즈피아니스트 곽윤찬, 드럼 오종대, 베이스 이준삼, 기타 준킴, 보컬 고은혜 등이 출연한다.

VI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2-2183-1290.

/전은재 기자 ej6621@

홍림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결과 발표전

국윤미술관 4~17일 박성완·김종규 작가전

김종규 작
'불꽃이 되어버린 Ferrari F40'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 가는 길에 문을 연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이 올해 개관 10년을 맞았다. '생명의 화가'로 불리는 서양화가 국중효 목포대 명예교수와 광주서부교육장을 역임한 조각가 윤영월 부부가 사비를 들여 2008년 문을 연 미술관에서는 다채로운 전시가 열렸다.

국윤미술관은 올해 홍림창작스튜디오를 오픈하고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홍림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총 8명의 작가를 선정, 기수당 4명씩 팀을 나눠 각 4개월씩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또 연계 프로그램으로 작가들이 천혜 경로원을 방문, 교육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홍림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제1기 결과 발표전 '무등산에 드리운 예술의 무지개'전이 국윤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역의 대표 아이콘인 무등산을 주제로 진행된다. 참여 작가들은 무등산 일대를 탐방, 창작 활동의 기초가 되는 소재 및 영감을 찾았고 세미나에 참여해 주제 의식을 심화했다.

제1기 참여작가는 박성완, 김종규, 이호국, 전지은씨다. 먼저 4일부터 17일까지는 박성완, 김종규 작가가 작품을 전시한다. 박 작가는 무등산의 모습을 평면으로 담아냈고, 김 작가는 청춘을 불꽃으로 표현해 레고를 활용한 작품을 전시한다. 이호국·전지은 작가는 오는 20일부터 8월2일까지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뿐 아니라 설치,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32-733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창사66주년 광주일보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쉽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2/221-4101,3

보증금 및 연회비

구 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 고 (2018년 기준)
개 인	850 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 족	1275 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 인	1700 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